

지자체 상생협력 '올인'... 성과도 '쑥쑥'

전남도 6개 시도와 60여개 사업·광주시 10여 지자체와 협약
“단체장 치적쌓기” 비판 속 국비 지원·지역감정 해소 등 효과

일선 지자체들이 '상생협력'에 올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체장의 치적 쌓기,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지방의 위기' 속에 국비 지원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구역이라는 칸막이는 물론 지역감정의 장벽을 걷어내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 이후 광주·전북·경북·서울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48개 협력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 경남 및 경기도와도 연말 또는 내년 초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경남과 경기의 경우 6~7개의 과제를 검토중에 있어 전남도가 추진중이거나 예정인 협력과제는 6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추진, 제2남도고속 건립, 광주전남연구원 역할 제고 등 18개 과제를, 광주와 전북 등 호남권 전체는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공연예술단 교류 등 13개 과제를 각각 추진 중이다. 또 경북과는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관광자원화 사업, 백신사업 공동 유치 등 7개, 서울과는 '지역상생포럼'을 통해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공동 대응 등 10개 과제를 발굴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와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고속 건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경북과는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관광자원화, 국도 끝 섬 주민 간 교류 추진, 공무원 교류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무안공항 활성화 등 '예민한' 사

안은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과 경기도와는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경남과는 연말까지, 경기도와는 내년 초까지 6~7개의 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상황별로 과제를 구분하고 진전이 더딘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수도권 견제를 위해서도 '지방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민선 6기 들어 전남도와 상생협약을 맺는 한편 호남권 및 영호남 광역단체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있으며, 최근엔 대구시와 '달빛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와 인접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생활권행정협의회를 최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인접 시·군·구 등 총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는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첫 발걸음을 떤 성과는 아직 미지수다. 11개 참여 지자체는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나주시·화순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 등이다. 서울시와는 지난 2014년 7월 상생발전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양 광역단체간 업무벤치마킹 등을 해나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너무나 짧았던 2박3일...잡은 손 놓지 못하고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작별상봉 행사를 마친 이산가족들이 손을 부여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꽃의 여인' 천국의 꽃밭에 잠들다

천경자

1924~2015



길레이니

고흥 출신...일본 유학, 전남여고·광주사범서 후학 길러
지난 8월6일 미국 뉴욕서 '슬픈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고흥 출신 천경자(사진) 화백이 지난 8월6일 미국 뉴욕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꽃의 여인' 화가로 불리는 천 화백은 지난 1998년 뉴욕으로 건너간 뒤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부터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큰딸 이혜선(71)씨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16면>

그동안 사망설이 꾸준히 제기되던 천 화백이 숨진 사실은 이씨가 지난 8월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으며, 써 확인됐다.

1924년 고흥읍에서 태어난 천 화백은 일본 동경여자미술전문 학교에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1944년 귀국 후 전남여고와 광주사범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는 당시 화려한 채색화를 선보이며 수묵화 일색이던 국내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으나, '일본 화풍'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52년 동생의 죽음을 형상화한 '생태(生態)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여인의 한(恨)과 환상, 꿈과 고독을 화려한 원색으로 표현하는 독보적인 화풍을 개척했다.

그는 1991년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시비로 최대 시련을 맞았다. 정신적 충격 속에 절필을 선언하고 뉴욕행을 택한 계기가 됐다.

천 화백의 대표작으로는 고흥 언니를 그린 '길레이니'(1973), '고(孤)'(1974년), '황금의 비'(1982년) 그리고 자화상 격인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 등이 있다.

그는 화가이자 문필가로서 수많은 일간지에 글을 연재했고 '인덕 위의 양옥집', '아프리카 기행 화문집' 등 수필집과 단행본 10여권을 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정교과서 충돌... 서로 할 말만 했다

청와대 5자 회동, 문재인 대표 "일치된 것은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기' 딱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우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만나 국정 현안 등에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이날 5자 회동에서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1월 중순까지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는 서로 입장이 팽팽해 맞서면서 서로 주장만 확인했다.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균형잡힌 역사 교과서

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성우 후보 수석이 전했다.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토론 수준의 (30분 정도) 대화가 있었다"며 "문 대표는 국정 교과서의 추진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 반면 저희는 지금 편

향된, 균형 잡히지 않은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3시부터 4시48분까지 진행됐다.

회동 후 문 대표는 "딱 하나 일치된 것은 청년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였다"고 평가한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역사인식이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5자 회동 연계해 예산심사를 거부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빛원전 보고서 부실 검증 ▶6면

신 팔도유람 - 경남 마산 ▶18면

광주 김국영 전국체전 MVP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명품답다! 최고답다!

중심상업지구와 학교가 바로 앞, 가까움이 프리미엄이다!

순천 신대지구 B3 B4 블록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오픈기념王大박 이벤트

오픈 3일간 선착순 100명 사은품 지급

- 첫째날** 10월 23일(금) 오후 4시
LED TV, 황금열쇠,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밥솥, 자전거, 잘풀리는집
- 둘째날** 10월 24일(토) 오후 4시
김치냉장고, 황금열쇠,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밥솥, 자전거, 잘풀리는집
- 셋째날** 10월 25일(일) 오후 4시
영문형 냉장고, 황금열쇠,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밥솥, 자전거, 잘풀리는집

*당첨자는 경품행사 현장에 있어야 경품 지급됩니다. *경품 배분은 당첨자 개인 부담입니다. *중복 당첨되는 경우 최우선 순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품 교육환경 도보로 초·중고 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환경

명품 생활환경 단지 바로 앞 중심상업시설이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

명품 자연조망 생태회랑 길, 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18층 골프장의 조망

명품 혁신설계 햇살과 바람을 품은 남향위주의 4-Bay 혁신설계(일부제외)

B3블록 72㎡ | 59㎡ | 436세대

B4블록 110㎡ | 104㎡ | 84㎡A·B

931세대 사행 중흥산업개발(주) 사행 중흥건설

■ 상거 투숙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제3자 C.G.검토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출입구 디자인, 조경시설, 시설물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문의 061) 727-1000

주택전사관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820번지